민족문화연구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 특집의 말

사전은 궁금히 여기는 대상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장 전형적인 참조 텍스트이다. 나아가 학술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돕는 공구서이자 그 지나온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물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형성과 발전—분화라는 역사적 전개에 따라 사전 편찬의 양상이 변화한다. 즉 새로운 사전 편찬 방법론이 접목되어 이전과 전혀 다른 구조로 편찬되기도 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매체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학문 분야의 사전은 점차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와 같이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 체계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네 편의 관련된 논문을 이번 호에 싣게 되었다. 이들 논문을 통해 개별적 사전이 편찬되는 과정을 통해 그 사전만이 가지는 역사를 알 수 있고, 특정한 분야의 사전 편찬 현황과 발전 과정을 통해 학문 발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편찬된 사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경봉은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사전화 과정과 사전학적 의의”에서 최초 국어대사전의 원고, 즉 ‘조선말 큰 사전 원고’를 분석하여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조성과 수정 맥락을 살폈고, 원고의 수정 과정을 추적하여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사전으로 출간되기 전까지 편찬 방법론에서 어떤 모색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수정이 단순히 원고를 다듬고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전의 구조를 바꾸고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의 수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도원영의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특수 사전 현황 분석”에서는 한국문학 번역가들이 활용할 만한 사전 자원의 현황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한국문학

번역용 참조 사전의 사전학적 성격을 밝힌 뒤 문학 번역용 참조 사전을 문학어 사전,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이언어/다언어 사전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출간 현황과 사전의 특징,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향후 새로운 문학 번역용 사전의 기획과 편찬을 준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윤지의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와 지향점—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중심으로—”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한국 무형문화재 정보 가운데 사전적 지식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올바른 한국 무형문화재의 지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현재와 같이 무형문화재를 단순히 행정적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지식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공공재로서의 한국 무형문화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신상현의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한자 사전을 시기별로 개괄한 다음, 이들 사전의 변화 양상을 한자 자형의 변화, 한자음의 변화, 뜻풀이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다양한 종류의 자전과 옥편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한국화 된 특유한 형태의 자전이 완성되었으며, 둘째 한자를 집대성한 자전과 옥편의 형태에서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셋째 10,000자 내외의 한자를 수록한 한자 학습사전이 많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특집에 수록된 네 편의 논문을 개괄하여 소개하였다. 사전 편찬 작업은 현재의 지식 체계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식 체계는 해당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되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문 발전과 사전 편찬의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이번 특집 논문을 통해 연구자들이 전공을 넘어서는 인식과 시야를 마련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